

DESIGNER

올해 밀라노 디자인 위크에서 선보인 설치 전시 (Reevaluating Wood)는 목재에 대한 연구와 소재의 이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아키라 무라오카(Akira Muraoka)와의 협업으로 완성했다.
@Photo by Michel Giesbrecht



designer
KOSUKE ARAKI



KOSUKE ARAKI

음식은 곧 삶이다. 환경과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인류를 구할 방법을 고민하는 아티스트, 고스케 아라키.

contributing editor 류유주 / cooperation Kosuke Araki(www.kosuke-araki.com)



1 콘셉트 모델인 베어 슈트(Bare Shoot)은 도시에 사는 아이들을 위한 축구 훈련용 신발이다. 세계의 유명 축구선수들이 어린 시절 축구화가 없어 맨발로 뛰었다는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Photo by Kosuke Araki
2 '음영(Shades)'으로 명명한 이 패브릭은 다이아몬드 형태의 정교한 구김을 넣어 빛에 노출되면 독특한 실루엣과 그림자 효과를 드러낸다. 어디서든 주변 환경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고안했다. @Photo by Kosuke Araki

우무(해초 등을 끓여 만든 물질)의 유용성을 탐구한 작품 (우무 소성). 포장용으로 막대하게 생산되지만 자연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을 대신할 수 있는 소재를 찾기 위한 도전이다.
@Photo by Kosuke Araki



시장과 상점, 주방에서 나온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그릇(Food Waste Ware)은 일본 디자이너 고스케 아라키의 이름을 오래 각인시킨 작품이다. 그는 1988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태어나 영국에서 디자인 공부를 마치고 현재 도쿄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다. 디자인을 바라보는 그의 시각은 유려하고 기능적인 것을 따르는 다른 디자이너들의 그것과는 사뭇 다르다. 그는 빠른 현대화 과정에서 살짝 벗어난 가치와 감도를 찾기 위해 작품을 만든다. 효율성과 합리성만을 추구해서는 얻을 수 없는 중요한 어떤 것이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특히 주목하는 것은 환경문제와 인간의 삶이다.

그는 네덜란드 디자이너 토르트 본체(Tord Boontje), 독일 디자이너 사라 반 가메렌(Sarah Van Gameren) 등이 이끄는 명성 높은 영국의 로열 칼리지 오브 아트(Royal College of Art)의 디자인 제품부에서 공부한 후 MA 학위를 취득했다. 앞서 언급한 음식물 쓰레기 그릇은 그의 졸업 작품으로 발표 이후 여러 전시와 아트 쇼 등을 통해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 작품은 다소 시적인 사고로 시작되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섭취해야 하는 음식, 그것은 다른 동물과 식물의 생명에서 온다. 그러나 낭비되고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는 대부분 땅에 매립되어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우리는 음식물에 대한 감사한 마음마저 잊고 산다는 것. 그는 이 작품을 위해 매일 얼마나 많은 음식이 버려지는지 기록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식기로 바꾸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담은 책자를 발행했다. <우무 소성(Agar Plasticity)> 역시 환경에 대한 해법을 담은 작품이다. 전 세계에서 매일 버려지는 합성 플라스틱은 생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위한 대안으로 일본 음식이나 과자에 사용되는 우무의 활용법을 찾아낸 것. 수많은 실험을 거쳐 탄성한 제품은 다양한 형태로 제작할 수 있고 환경친화적인 방식으로 폐기 가능하다. 가장 최근에 선보인 작품은 <아니마(Anima)>다. 이 작품은 2013년의 푸드 웨이스트 웨어에서 출발해 2018년 발표한 <아니마>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식물성 폐기물이 탄화된 분말에 생물을 더해 검은빛이 도는 에스프레소 컵, 그릇 등으로 완성했으며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의 영구 컬렉션으로 등록됐다. 고스케 아라키의 작품은 실용성과 아름다움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오히려 인간의 삶과 환경에 대한 인식과 연구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 영국, 스위스, 일본, 스페인, 독일, 미국, 이탈리아 등 세계 무대에 인류를 구원할 소재와 제품을 꾸준히 선보이는 디자이너,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을 지금 그가 하고 있다.

해초에서 추출한 우무로 만든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 포장 재료. 화장품, 와인 등을 포장할 수 있는 폼 형태부터 옷걸이, 가방 등으로 만든 종이 형태, 골판지까지 다양하다. @Photo by Kosuke Araki



음식물 쓰레기에서 소재를 추출한 그릇 컬렉션 <아니마>. 탄화된 폐기물에 생물을 더해 검은 빛나는 작품들을 완성했다. @Photo by Kosuke Araki

